

화정남초 박유찬, 광주 씨름 14년 만에 금메달 안았다

광주씨름이 14년 만에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역사적인 메달의 주인공은 화정남초등학교 박유찬(6년)이다.

박유찬은 25일 김해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씨름 남자 12세이하부 역사급에서 정상에 오르며 광주 씨름에 14년 만의 금메달을 안겼다. 광주가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2011년 제40회 전국소년체전 이후 처음이다.

박유찬은 이날 결승에서 이동욱(김해 신어초)을 상대로 2-1 승리를 거뒀다. 1판을 이기고 2판을 내준 박유찬은 마지막 3판에서 승리하며 금메달을 확정지었다.

박유찬은 초등학교 3학년 말 친구 심승민의 권유로 처음 씨름을 시작했다. 이후 약 3년간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그는 올해 들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대회는 박유찬의 두 번째 소년체전 출전이었다. 지난해 첫 출전에서는 예선에서 탈락하며 아쉬움을 남긴 박유찬은 패배를 발판 삼아 그는 지난 1년간 착실히 준비해왔다. 소년체전을 앞두고는 전국 단위 대회 세 곳에서 모두 결승에 오르며 가능성을 입증했다. 제55회 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와 전국시도대학 장사씨름대회에서는 금메달, 대한체육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는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세 대회 결승에서 모두 맞붙었던 상대는 이동욱이었다. 박유찬은 이번 소년체전 결승에서도 이동욱을 다시 만났고 대한체육회장기에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남자 12세이하 역사급 정상
영암초 문승유 3년 연속 '금'
평영 50·100m 2관왕 쾌거

서의 패배를 완벽히 설욕했다. 박유찬은 “1-1이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다. 그 래도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 이겼다. 상대 기술이 단조로운 편이라 앞무릎치기나 오르다리 방어 같은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습했다.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유찬은 지난 두 달간 충남 당진에서 강화 훈련을 소화했고, 방학과 야간, 주말을 할애해 소년체전을 준비했다.

이상범 화정남초 코치는 “박유찬은 키 170cm, 체중 70kg의 다부진 체격을 갖춰 근력이 타고났고, 머리가 좋아 상대 분석을 잘한다. 몰두하는 스타일이라 기술을 공부하듯 파고든다. 신체조건도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박유찬은 “처음에는 학교에 씨름부가 있는지 몰랐는데 해보니까 재밌고 적성에 맞았다”면서 “광주에 소년체전 금메달이 없었다고 해서 꼭 따고 싶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서 기쁘다. 부모님과 코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중학교 1학년 임현승을 롤모델로 꼽았다. “작년 전국대회에서 봤는데 자세와 기술이 정말 좋았다. 나도 기술을 다양하게 익혀 꾸준하게 기량이 발전하는 선수가 되고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한 점이 금메달의 원동력이 된 것 같다. 앞으로 꾸준히 기량이 발전하는 선수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남에서는 2관왕이 2명 탄생했다. 종목은 모두 수영이다.

전남 첫 금메달의 주인공 장성사창초 정근민(6년)이 수영 12세이하부 자유형 100·200m에서 우승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고 영암초 문승유(6년)는 수영 여자 12세이하부 평영 50·100m에서 우승하며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특히 문승유는 2023년 평영 50·100m 4학년 이하부 2관왕에 이어 지난해 12세이하부 평영 100m 금메달, 그리고 올해 다시 2관왕에 오르며 소년체전 3년 연속 금메달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문승유는 혼계영 200m와 계영 400m에서 추가 메달에 도전한다.

한편 대회 2일째(오후 5시 기준)인 25일 광주는 조정, 씨름, 소프트테니스, 바둑 등 종목에서 금 6·은 9·동 7개 메달을 획득, 전체 47개 메달(금11·은16·동20)을 따냈다. 전남은 사격, 바둑, 검도 등 종목에서 금 5·은 6·동 13개 메달을 따내면서 전체 32개 메달(금11·은 8·동 13)을 획득했다. 조혜원 기자

에어로빅힙합 이태민·수영 정근민 ‘금빛 활약’

전국소년체전 광주·전남 첫금

광주·전남선수단의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첫 금메달이 각각 에어로빅힙합과 수영에서 나왔다. 광주는 광주에어로빅힙합 전문스포츠 클럽 소속 이태민(3년)이, 전남은 장성사창초 정근민(6년)이 각각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광주의 첫 금메달 주인공 이태민은 지난 24일 거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에어로빅힙합 남자15세이하부 개인전에서 18.400점을 받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이태민은 감각적인 동작과 탄탄한 기본기로 무대를 압도했고 그동안 묵묵히 흘린 땀방울의 결실을 맺었다.

이태민은 “마지막 소년체전에서 후회 없이



이태민

정근민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수영 남자12세이하부 자유형 100m 결승에서 58초22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서울 대표 박의혁(58초29)과 불과 0.07초 차의 접전 끝에 터치패드를 가장 먼저 찍은 정근민은 경기 막판 놀라운 집중력으로 역전을 이뤄냈다.

이튿날인 25일은 자유형 200m 결승에서 2분 05초64로 1위를 차지하며 두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고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정근민은 “초반부터 자신 있게 레이스를 풀 어갔고 마지막 25m에서 끝까지 밀어붙이자는 생각뿐이었다”며 “체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특히 지구력 향상에 힘썼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해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목표도 덧붙였다. 조혜원 기자

OK저축은행 진성태 “후배들 더 나은 환경에서 꿈 이어 가길”

모교 문정초 배구용품 전달

OK저축은행 웃맨 프로배구단의 베테랑 미들블로커 진성태(32)가 모교 광주 문정초등학교 후배들에게 배구용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진성태는 OK금융그룹의 공익법인인 OK배정장학재단을 통해 문정초 배구부에 약 250만원 상당의 배구용품을 기부했으며 지난 24일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진주동명고 체육관을 찾아 전달식을 갖고 후배들의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했다. 유소년 선수들을 위해 부상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과 테이핑 등 노하우 전달 등 재능기부도 함께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4년 대한항공과 트레이드를 통해 OK 웃맨 배구단에 합류한 진성태는 광주 문정초, 문흥중,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를 거친 광주 지역 유소년 배구의 산물이다. OK금융그룹이 후원하는 또 다른 스포츠단인 OK 웃맨 럭비단의 연고지도 광주시일 정도로 이번 전달식과 인연이 깊었기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역시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함께 참석했다.

진성태는 “모교 후배들이 열악한 여건에서도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동기부여가

잘 마무리해 기쁘다. 2년 연속 금메달이라는 결과에 스스로도 놀랐고, 묵묵히 이끌어주신 지도자 선생님들과 가족에게 감사드린다”며 “고등학교 진학후에도 열심히 운동해서 광주를 대표하는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남의 첫 금메달 주인공 정근민은 24일 창원



OK저축은행 웃맨 프로배구단 진성태가 지난 24일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진주동명고 체육관을 찾아 모교 광주 문정초 배구부 선수들에게 배구용품을 전달하고 응원했다.

OK저축은행 제공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꿈을 키워가는 데 직결된다는 걸 잘 알기에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느껴 이번 기부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실행하고 싶다”며 “배구계 안에서 선수한 구조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문정초는 전남 순천대석초와 맞붙어 세트스코어 1-2로 졌다. 조혜원 기자



화정남초등학교 박유찬이 25일 김해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씨름 남자 12세이하부 역사급 정상에 오르며 광주 씨름에 14년 만의 금메달을 안겼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김도영 4경기 연속 홈런에도…KIA 패배

삼성에 2-3…디아즈에만 3점 내줘

KIA 타이거즈가 2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은행 SOL 뱅크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2-3으로 패했다. 시즌 26패(24승·승률 0.480)를 기록한 KIA는 리그 8위에 머물렀다.

선발 운영철은 5이닝 동안 3피안타 2실점으로 호투했고 타선에서는김태균이 3안타를, 김도영이 4경기 연속 홈런포를 때려냈지만 팀 패배에 빛이 바랬다.

기선은 KIA가 먼저 잡았다. 1회 초 2사후 김도영이 삼성 선발 윌타인을 상대로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다.

하지만 리드는 오래가지 않았다. 1회 말 윤영철이 삼성 디아즈에게 투런 홈런을 얻어맞았고 승부는 1-2로 뒤집혔다.

KIA는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다. KIA는 7회 들어 반격에 나섰고, 김태균이 삼성 백정현의 직구를 통타해 좌측 담장을 넘기는 동점 솔로 홈런을 날렸다.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던 9회초, KIA는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찬스를 맞았다. 최형우의 안타에 상대 실책까지 겹쳐 2사 1,2루의 기회를 잡았지만, 김태균이 2루 땅볼로 물러나며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KIA는 9회 말 디아즈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으며 한점차로 무릎을 꿇었다.

조혜원 기자

‘막판 PK 실점’ 광주FC, 강원에 0-1 석패

광주FC가 홈에서 통탄의 패배를 안았다.

광주는 25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남행 K리그1 2025 15라운드 강원FC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으로 실점하며 0-1로 졌다. 이로써 리그 5패(6승4무·승점 22)를 기록한 광주는 6위로 순위가 한계단 하락했다. 반면 강원은 승점 21(6승3무6패)을 기록하며 7위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볼 점유율 55%로 강원을 압박했지만 팽팽한 흐름 속에 슈팅 기회를 좀처럼 만들지 못했다.

광주는 전반 13분 상대 실수를 틈타 문민서가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으나 수비에 막혔고, 44분

최경록의 코너킥을 김한길이 연결했지만 골문을 벗어났다. 0-0으로 전반을 마친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박인혁과 오후성을 투입하며 공격에 변화를 줬고 후반 11분 박인혁이 헤더로 첫 유효슈팅을 만들었다. 31분 박인혁이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슈팅이 골대를 넘겼고, 45분 아사시의 슈팅과 헤이스의 슈팅은 강원 골키퍼 이광연에게 막히며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승리의 여신은 광주 편이 아니었다. 후반 추가시간 수비수 조성권의 핸드볼이 비디오판독 끝에 페널티킥으로 선언됐고 강원 키커로 나선 김동현에게 실점하면서 0-1로 고개를 숙였다. 조혜원 기자